현불논단

불교 기초훈련에 전념하자



백도수
한국불교학회장

매체 통해 튀르기예 지진 접하며
잠시 한국불교와 불자 모습 반추

승가와 재가자 무너지지 않으려면
불교 삶 강화해야 할 필요성 느껴

물질 아닌 법상속자로 살아가는 일
이 시대 실천해야할 불자 기초훈련

매체를 통해 튀르키예에 지진으로 무너진 수많은 붕괴 건물을 보고 수만의 사망자 소식을 생생하게 듣는다. 바다모래 위에 고층빌딩을 짓고 달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낸 인간은 기술능력을 한껏 뽐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자연재해조차도 피하지 못해 고스란히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큰 피해는 반복되는 지진 위험에도 튼튼한 기초와 골조를 갖춘 내진용 건축물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재앙을 보며 잠시 한국불교와 불자의 모습을 반추해본다. 불교 내에서도 승가와 재가 단체라는 비유적 의미의 건물이 존재한다. 과연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것인가? 내외적 조건에 의해 승가와 재가단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가르침과 승가와 재가의 불교적 삶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교에도 집짓기에서의 기초토대와 골조와 같은 기본이 있다. 배움의 기본은 계학, 정학, 혜학의 삼학이다. 뛰어난 신체적 언어적 행위, 뛰어난 마음, 뛰어난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을 지을 때 1층 위에 2층, 2층 위에 3층을 쌓을 수 있다고 하셨다. 아래층이 굳건하지 않으면 하중으로 집은 무너지게 된다. 삼학에서 계를 잘 지켜야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져야 지혜가 밝아지기에 배움의 기본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초토대인 계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은 코끼리 발자국이 모든 동물의 발자국을 포섭하듯 모든 가르침을 포섭하는 사성제이다. 금강경의 기본관념은 무집착공과 무분별공이다. 이렇듯 부처님의 제자로서 승가와 재가 삶의 기본자세가 존재한다. 특히 부처님께서 승가는 수행과 법담(전법교화)에 전념하며 살아가야 하고, 재가는 보시와 지계, 생천을 위한 공덕행으로 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도제양성, 포교, 역경의 조계종의 3대 지표의 토대와 골조를 굳건히 하기 위해 승가와 재가는 불교 기초훈련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승가이든 재가이든 불교의 기본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망으로 사회관계에서 세속인의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승가 삶의 기본자세는 소욕지족하는 삶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세속인의 비난이 있을 경우 다시 계를 제정해 위범하지 않도록 조치하셨다.

신앙과 수행에서도 자신과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 보여주기식 신앙과 수행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는 일에 임해야 한다. 백 년을 무의미하게 사는 것보다 하루를 진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불교집단은 개인이나 그룹을 주인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법을 주인으로 내세워야 한다. 이 땅에 불교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삼학을 굳건히 하고 사성제를 알아차리고 집착과 분별을 버리고 육바라밀 보살행을 현실사회에 실천해야 한다.

1%, 56, 45 cm 관 안에 자신의 몸과 수의, 종이로 만든 보공을 제외하고 소유한 어떤 값진 것도 넣을 만한 공간이 없음을 여실하게 알아야 한다. 단지 업 따라 왔다가 업 따라가는 사바의 삶일 뿐인데 물질과 명예에 지나치게 집착해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될 일이다.

소욕지족하며 물질의 상속자가 아니라 법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일은 이 시대에 실천해야 할 불자의 기초훈련이다.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삶, 수행과 법담에 전념하는 삶, 세상에 물들지 않는 부처님의 법제자, 법상속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훈련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승가는 계율을 지키고, 마음 수행을 하고 지혜를 키우는 훈련, 재가는 보시와 지계와 공덕행의 기초훈련에 매진해야 한다.



송마나의
시절인연

까치 소리, 진여의 소리

깍, 깍, 까치 소리가 들려온다. 벌떡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베란다 난간에 까치가 앉아 있다. 왠지 올해는 좋을 일이 생길 것만 같다. 까치의 작은 소리에 이리도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부풀어 오르는 것인지.

지금도 지구는 큰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다. 초당 3만 km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지구의 소리를 나는 왜 듣지 못할까? 그리스 무녀들은 델포이 신전의 동굴에서 괴상한 우주의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는 하늘을 도는 일곱 별들의 소리를 듣고, 그 혹성에 숫자를 매겨 이를 음표 삼아 하늘의 음악을 만들었다. 하늘의 소리를 표현하는 칠음(七音), 그것이 서양의 한 옥타브를 구성하는 7개 음으로 규정되었다.

한편, 호주의 원주민들도 동굴에서 제사를 지내며 지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 그들은 대나무 피리를 만들어 지구가 달리는 소리를 불었다.

〈장자(莊子)〉 '제물론' 에서 남곽자기는 하늘의 피리 소리(天籟)를 들어봤느냐고 안성자유에게 물었다. 사람의 피리 소리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의 구멍에서 나오는 사람의 호흡 소리이고, 대지의 피리 소리는 자연에서 바람이 불 때 나는 소리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피리 소리란 무엇일까? 아마도 듣고 있지만 들리지 않는 소리일 것이다. 하늘은 본래 없는 자리이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와 대지를 흔드는 바람으로 가득 찬 곳이다. 텅 비어 있어 모든 것이 들락 달락 할 수 있는 내 본래의 마음자리. 다만 감각에 사로잡혀 분별하는 마음이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착하여, 그것의 소리만을 듣기 때문에 만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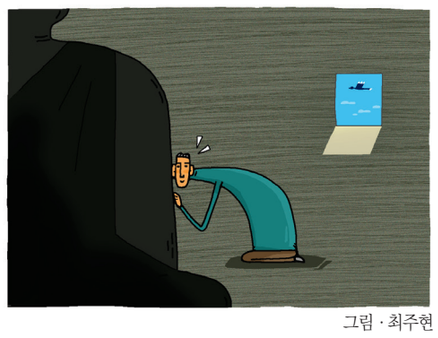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소리를 뜻하는 음(音)은 선다는 의미의 입(立)과 태양을 일컫는 일(日)이 합성된 글자이다. 온 누리를 밝혀주는 태양은 진리를 상징한다. 부처님의 말씀은 무명에 잠겨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환하게 밝혀준다. 그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본래부터 있어왔던 불성(佛性)이 일어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의 이름에는 '음' 자가 들어 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중생이 그 이름만 불러도 우리 마음을 꿰뚫고 고통을 치유해 준다. 하늘의 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다. 하늘의 피리 소리는 만유의 소리. 우리도 마음의 눈을 뜨면 만물의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늘의 피리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없는, 마음으로 듣는 진여(眞如)의 소리이다.

까치 소리에서 새해가 밝아오는 소리를 듣는다.

〈작가〉

社說

해인총림 위상 회복 기대한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원천인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고찰로 '법보종찰(法寶宗刹)' 로 불려왔다. 그런 해인사가 신년벽두부터 내홍으로 몸살을 앓았다. 주지 현응 스님이 범계 의혹에 휩싸이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로 인해 주지 추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해인사는 여러 논란 끝에 주지 후보 추천을 철회하고 "참회가 우선이지 주지 선출이 우선이 아니다. 해인총림은 이러한 근신과 참회 후 총림대중의 의견과 종단의 협조 하에 여법하게 후임 주지를 선출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조계종은 2월 3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응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해인사는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이럴 경우 사찰 종무행정의 공백과 혼란 예상됐고, 조속한 후임 주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원장 혜일 스님이 해인사 임회에서 주지 후보로 추천돼 2월 16일 공식적으로 주지 임명장을 받게 됐다.

혜일 스님은 교육원장을 비롯해 총무원 기획실장, 제14 · 15 · 17대 중앙종회의원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맡아 종무행정에 밝은 스님으로 평가돼 왔다. 또한 문중 내 평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3원장 중 한명인 교육원장을 해인사 주지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종단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주지로 임명한 것은 해인총림 해인사가 한국불교에 가지는 위치가 크고, 빠른 정상화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종무행정에 밝고, 문중 내 유대감이 좋다고 평가되는 혜일 스님이 주지로 임명된 만큼 해인사가 내홍을 딛고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고 했다. 풍파를 겪고 더욱 단단해진 위상의 해인총림을 기대한다.

전주시, '종교 감수성' 되새기길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면서 만남의 장소로 교회를 대부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2월 16일부터 5월 말까지 35개 동을 순회하며 전주시정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는 '2023년 시민과 함께 하는 동 순방' 을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일어난 것은 최근 3월 9일까지 일정이 공개되면서부터다. 일정에 따르면 총 13회 일정 가운데 8회가 교회, 1회가 성당에서 열린다.

동 순방 일정 중 70% 정도가 교회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종교가 다르거나 종교가 없는 시민들은 원하지 않는 장소에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불편함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전주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장이 특정 종교 공간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것은, 시민의 종교 자유 침해는 물론, 정교분리 원칙에도 위배됨에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 특정 종교시설 투표장 설치, 국공립 합창단 종교 편향 등 공공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도 이러한 '종교 감수성' 부족 때문일 것이다.

동 순방 대부분이 교회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불교계가 공분하고 있다. 시장실 항의 방문, 성명서 발표, 1인 시위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젠더, 인권, 성인지 감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종교 감수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디 전주시가 '종교 감수성' 을 되새기는 행보를 이어가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겸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수행화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무압박 양말 증정)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